

세상을 바꾼 사진 200점 광주 최초 공개

AP사진전 '빛의 기억, 찰나의 역사'

5개 테마...3월 1일까지 김대중센터

찰나의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컷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도사진들의 작품 전시가 오는 3월 1일 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이어진다.

이번 AP사진전 '빛의 기억, 찰나의 역사'는 AP통신이 85년 동안 남긴 역사적인 명장면 200점을 광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다.

AP통신은 UPI, 로이터, AFP 등과 함께 세계 4대 통신사중 하나로 전례 없는 뉴스 수집을 통해 광범위한 주제범위를 세상에 알렸다.

매일 2,000개 연간 100만개의 사진이 세계의 틈새에 올라오는 등 세계적인 통신망을 바탕으로 방대한 소식과 뉴스자료를 전 세계에 전해 왔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온 AP통신의 이번 사진전은 그동안 축적해온 사진 중 보도사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사진들과 인간의 감성과 드라마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 작품성 있는 사진들로 구성된다.

특히 자칫 건조해 보이는 보도사진의 편견을 부수고 인간의 숨결로 누구보다 깊게 파고들었던 카메라의 호흡들은 인류가 만들어온 역사,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 인간의 감정 결로 다 가간다.

이번 AP통신 사진전은 총 5개의 테마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카메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3개의 메인 테마는 AP사진전이 자칫 보도사진이라 가

질 수 있는 편견을 멋지게 탈피한다.

사진미학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진들은 역사의 자세한 사건 대신 순진무구할 정도로 대상과 풍경 앞에서 순수하게 빛을 펼친다. 카메라는 숨을 쉬며 자신이 만났던 경이로운 순간들 앞에서 호흡을 멈추고 빛이 만든 '빛이 남긴 감정', '빛의 온도', '빛의 기억'을 선보인다.

빛이 남긴 감정 '은 카메라가 따라간 하루의 시간을 보여준다. 시간대별로 배치된 입체적인 공간에서 새벽부터 아침, 정오, 밤에 일어난 수많은 순간들이 나타난다. 입장한 관람객들은 지구가 간직한 경이로운 색채와 빛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빛의 온도'는 카메라는 역사의 사건이나 진실보다 자신에게 묻어있는 온도를 기억함을 이야기한다. 감정이 남아 있는 사진의 한 순간 한 순간에는 인간의 또 다른 내면 속의 진실이 숨 쉬고 있다. 카메라는 역사적인 한 순간에서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 자신에게 남은 온도로 그것을 복원해 낸다. 온도가 남아 있는 사진들의 공간각적 체험을 통해 관람객은 사진이 빛으로 만들어내는 온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체험하도록 돕는다.

'빛의 기억'에서 카메라는 귀를 열고 소리를 응시한다. 누구보다 뜨거운 발로 뛰고 헤엄치고 때론 날아야 했던 카메라는 자신이 만난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애쓴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세계를 담아내고자 움직였던 카메라는



이란 북서 부우르미아 소금호수에 누워있는 이란인들.

/문화광방DKB제공

자신과 만난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 재즈문화, 흑인인권운동, 히로시마 폭격, 세계의 페스티벌, 1960년대 뉴욕문화, 히치하이킹, 나사와 소련의 우주전쟁, 브로드웨이에서, 비틀즈, 무하마드 알리, 에디트피아프, 마릴린 먼로, 프레디 머큐리 등의 슈퍼스타까지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이 키워드 별로 전시된다.

감정의 질서로 바라보는 이 3가지 테마는 AP사진이 사진미학의 절정과 체험 예술작품으로서도 귀한 인류의 기록임을 보고하고 있다.

'찰나의 역사' 전에는 플리쳐상작품으로 알려진 사진들부터 세계의 숨겨진 사이드라인들을 찾아 다녔던 기자와 사진작가들의 뜨거운 현장들을 소개한다.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을 포함한 반전운동, 최근 이슈인 난민의 현장까지

동시대 보도사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중 가장 숨겨진 국가라고 불릴만한 북한의 일상과 숨소리를 따라가는 특별전 '북한전'도 마련됐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같은 민족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하는 북한의 풍경은 다소 건조해 보이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의 숨소리와 숨 냄새가 존재한다. 소소한 주민들의 일상에서부터 아름다운 풍경까지 지금까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북한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애잔하고 그리움이 곱친다.

전시를 보러온 관람객들이 직접 모델과 사진작가 돼 볼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연극 관람권을 선물하는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보람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재미진 전남' 연재

본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매주 월요일자에 '전남관광 디카시-재미진 전남'을 연재합니다. '재미진 전남'은 전남문인협회 회원들이 전남의 풍경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아 짧은 시와 함께 곁들여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전남의 명소 소개와 더불어 시의 향기를 만끽하는 연재물이 될 것입니다.



순천만

배영숙

바람에 흔들리고 눈물에 흔들려도
웅근 만갯을 고집하는 갈대
갯벌에 갑골문자로 서사시를 쓰면
저마다 자서전으로 해독하는 사람들
오래된 책을 하나 둘 내려놓고 간다.

문화 브리핑

- ◇장은영 개인전 '영원히 서리라' I =6-10일 자미갤러리
- ◇원화전시 '도토리 탐정' =6-24일 서구문화센터 계단
- ◇이한범-인물화=7-23일 일곡갤러리 일곡도서관
- ◇무등갤러리 전시지원 프로젝트9 '예술길을 그리다' 전 =8일까지 무등갤러리
- ◇서현일 개인전=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
- ◇기획 '국악콘서트' =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미로 화가 장터=9-11일 무등갤러리
- ◇연극 '나의PS파트너-광주공연' =9일-2월 23일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화-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6시)
- ◇개관 2주년기념 기획전 '주관적 반응' =10일-3월 8일 이강미술관
- ◇Con passionne piano Ensemble=11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심은석 개인전 'Absorption' =3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전시실

유·스퀘어 문화관 '아름다운 국악콘서트'

9일 가야금 앙상블 '휘현' 출연

영화 OST·대중가요 등 들려줘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아름다운 국악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연에 출연하는 '휘현'은 가야금 앙상블로 전통 국악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며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 팀이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소리가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가야금의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쑥대머리, 아리랑 연곡, 애니메이션 메들리, 걱정 말아요 그대, 아빠의 청춘 등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공연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자 해마다 1월에 국악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며 "2020년 첫 번째로 유·스퀘어가 선보이는 공연인 만큼,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관람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태양광 공사 최저가격,
최고품질 시공보장!!

태양광 부지 매입!!

- 태양광발전사업 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 발전허가·개발행위·PPA완료 부지 우선매입

태양광 발전소 분양·시공
주택, 공장, 축사 등 설치!!

- 태양광발전소(RPS)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 컨설팅
- 정부보조금 지원사업(단독주택, 건축물 태양광 설치)
-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 시공
- 태양광 조달우수업체(공공기관, 지자체, APT 등)

주요사업

- 산·재생에너지 우수전문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 금속 구조물·창호공사업
- 전기, 소방, 기계설비공사업
- 조달우수업체 (태양광발전시스템)
- 전기 종합감리업 및 설계업 1종
- 공동주택(아파트)설계, 감리업
- 정보통신 공사업/난방시공업체(제1종)
- 한전 무정전 협력업체(배전단가)
- 전기차충전기, 전력량계, 파형관 사업

(주)세진엔지니어링

SEJIN ENGINEERING CO.,LTD

HP. 010-3735-7113

대표전화 : 1588-4556 문의전화 : 062) 384-6333